요만한 거 하나라도 내가 한 거만치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 21면에서 계속

우리가 죽는다고 맘대로 죽습니까, 살았다고 맘대로 삽니까? 그렇지만 그런 틈바구니에서도 한생각은 저 강물 흐르듯이 여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은 없어지라 해서 없어지고 생기라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죠? 물은 우주를 덮고도 남고 싸고 돌아도 남습니다. 그렇듯이 한생각의 법도 여여합니다.

또 물과 같이 인간의 마음이 지혜롭다면 내 몸의 피도 물 흐르듯 흐르고, 만약 지혜가 모자란다면 피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피가 잘 소통되질 않는다, 어디가 잘못됐다, 눈이 어둡다 하는 게 다 어디서 오겠습니까? 내 한 생각이 매사에 적합지 않게 자꾸 일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속상해하니까 은근히 그것이 누적이 되는 것입니다. 누적되어서 찌꺼기가 되고, 이렇게 마음이 지혜롭지 못하니까 위막이나 장막이나 간막에 음식을 먹어도 찌꺼기가 항상 누적이 되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누적이 되니까 역시 물질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병이 오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군데가 아프다 그래서 꼭 거기서 고장이 난 게 아닙니다. 딴 데서 고장이 나서 거기까지 오는 것이지.

이런 문제 등등이 하나서부터 열까지 우리 생활 속에 다양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마음이 천차만별로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는 이 만법의 진리를 우리는 생활 속에서 알아야 합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듯이 이렇게 돌아가는 진리를 말입니다. 그게 바로 참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 한 번만 속 끓여 보십시오. 숨이 차고 벌써 눈이 게슴츠레해지고 귀가 멍멍하고 보이는 게 없고 누구가 잘하든 못하든 벌써 보면 신경질이 납니다. 이런 지경에 이를 때는 자기 몸을 자기가 긁어서 피를 내는 거나 같죠. 그러고 아파서 애를 쓰는 거죠.

어저께 텔레비전을 보니까 '추적 60분'에 맨손으로 수술하는 얘기가 나오더군요. 여러분도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너무 요지경 속 같아서…. 예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는 요지경이다 이거예요. 부처님 법은 손이 가지 않고도 손이 갈 수 있는 마음의 법인 것이지 요술꾸러기처럼 하는 그것은 마술과 같은, 인간의 자비성이 아니라 그것은 사기성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요지경입니까? 인간의 마음들이 진실치 못하고 남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낫는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중한 것은 마음입니다.

또 그렇게 남을 속여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속고 또 속고…, 자기한테도 속고 남한테도 속고. 그것은 허영심과 욕심 때문이 아닐까 봅니다. 또는 기독교인들이 안수기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뼈가 부러지도록 안수기도를 해서 죽이고 또는 안수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도 그냥 마음을 이리저리 돌려서 마취시킨 것처럼 해 놓고선 하는 문제들….

또 한 가지는 온통 날뛰고 손을 들고 입으로 떠들고 그러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마구니 짓을 하기 때문에 죽어서 요다음에 다시 생산이 된다 하더라도 마구니로밖에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이 있음으로써 선신도 있고 마구니도 있지, 인간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느니라. 너희가 마음, 행, 말 이 세 가지를 다 하기에 달린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별나게 마음을 쓰고 별나게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에이그, 세상은 요지경 속이야. 저 사람네들 마음들이 왜 저럴까? 저렇게 짐승같이 사는 사람은 요다음에 짐승의 모습밖엔 또 쓰고 나올 게 뭐 있겠나.' 이러는 겁니다.

물론 부처님이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뜻을 행하시고 행하는 걸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해 나왔으니 선종(善種)일 테지만 그 도리를 지키지 못하고 인간 도리도 지키지 못하고 생활 속에서 진실함이 없는 사람네들이 있기 때문에 선신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마구니도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 제자라고 한다면 바로 부처님은 자기 마음 가운데 깊숙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너무도 잘 압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 법입니다.

이렇게 나도 약을 팔고 있습니다마는 이 약파는 소리가 한데로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도 모든 것을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그 점을 아시고, 나한테 닿지 않는 말이라고 해서 비웃고 나한테 닿는 말이라고 해서 간직하고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스무스하게 그거는 그것대로 받아서 한번 굴려 놓고 좋은 말도 한번 받아 굴려 새겨 놓고 항상 그릇이 비어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의 그 깊은 잠재의식 속에, 참나가 공(空) 안에 들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에게 맡겨 놓으라고 하는 그것도 내가 공했고 이 세상이 다 공했으니 포함해서 공한 주인공에 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게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부처도 이루고 세상이 공한 줄 알았고 나도 공한 줄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공(主人空)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모든 일체 생활을, 들이고 내는 것을 다 몰락 놓고 '다 당신이 하는 거, 들이고 내는 걸 바로 당신이 하는 거니까 당신이 다 알아서 길잡이가 돼 주실 거다.' 하고, 또 길잡이가 될 거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도 안 되는 거는 '나를 테스트해 보는구나.' 하고선 놓고, 또 되는 거는 감사하게 믿고 놓고, 모든 것을 맡겨 놓을 때에 비로소 자기 자신의 은사 아닌 은사, 참 은사를 만날 것입니다, 진짜 은사! 자기를 수시로 이끌고 다닐 수 있는 참자기를 말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가졌을 때 그것을 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도 얘기했죠? 땅에서 싹이 나오는 거와 마찬가지고 어른들이 어린애 낳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입니다. 어린애를 출산했을 때 갓 나와 가지고 어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한 소식 얻었다 할지라도 어린애 갓 낳은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내가 한 소식 했다는 말 할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내가 갓 나와서 사리를 알고 판단을 할 정도로 커졌을 때는 이 세상 돌아다니면서 크고 작은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체험하면서 놓고 다시 또 체험하면서 놓고 참자기가 그렇게 거침없이 여여하게 돌고 행한다는 걸 알았을 때 어른이 된 것입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한 소식 얻었다고 결론 지어서 꽂아 놓지 말라는 얘깁니다. '한 소식 얻었다고 해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깁니다. 점점 자라서 어른이 될 수도 있고 늙을 수도 있고 늙었다가 또 애가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는 어른이 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심부름도 해 주고 심부름하는 걸 받기도 하죠. 우리가 지금 높은 일만 합니까? 어린애를 낳아 가지고 똥 기저귀도 빨고 똥을 씻기도 하고 어린애를 기를 때에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궂은일을. 어른이 돼서 애의 밑을 씻어 줘야 하고 애는 애기 때문에 또 애 노릇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높아도 높은 게 없고 얕아도 얕은 게 없이 평등한 진리의 그 뜻을 항상 생활 속에서 파악하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스스로 샘물이 솟듯, 솟아나는 그 샘물의 맛을 알고 역력하게 나를 끌고 다닐 수 있는 나의 참주인공이 진짜 생기는 것입니다, 홀연히. 그저 생산이 되기만 하면 그때 가서는 언젠가는 성불할 단계가 오고 언젠가는 열반할 단계가 오죠. 어린애만 낳아 놓으면 저절로 어른 되고 늙어지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그 차원을 알고 차원이 높아져서 나중엔 백지로서 크고 작은 게 없고 내세울 게 없을 때는 또다시 요다음에 모습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이 내 모습이기 때문에 따로이 모습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자유스럽게, 여기만 내 집이 아니라 우주 삼천대천세계가 다 내 집이니 그저 한 찰나에 이 집도 내 집이요, 저 집도 내 집인데 따로이 내가 내 몸을, 내 모습을 그려서 또 내놓을 게 뭐 있겠습니까?

알아듣기 쉽게 요렇게 말을 해 드리는 건데 이 차이가 얼마만큼 크고 귀중한 뜻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이 도리를 완벽하게 안다면 내가 당신이 될 수 있고 당신이 내가 될 수 있으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모습은 다를지언정 마음이야 어찌 다를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 **높아도 높은 게 없고 얕아도 얕은 게 없이**
> **평등한 진리의 그 뜻을**
> **항상 생활 속에서 파악하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둘이 아닐진대 당신 하나가 이 나라의 임금이라면 국민을 위해서, 어떠한 문제가 잘못돼 돌아갔을 땐 내가 그 대통령 속에 들어가서 내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그거를 잘 지켜 나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커버해 나갈 수 있고. 대통령의 마음도 그렇겠지마는 그 마음과 이 마음이 둘이 아니어서 마음으로부터 오관을 통해서 정신이 번쩍 들면서 자기가 잘못 끌고 간다는 걸 알게 됨으로써 그것을 확 고쳐서 잘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습을 따로이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창살 없는 감옥이나 매한가지인 이런 세상에 내가 그 모습을 해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그 속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여기 저기 나 아님이 없다 이겁니다. 그 뜻은 미생물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선신에 이르기까지, 부처에 이르기까지 어디고 아니 닿는 데가 없이 내 몸 아닌 게 없다는 얘깁니다. 내 자리 아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이런 것이 옳다, 저런 것이 옳다, 이런 것이 좀 낫다, 이것은 정법이 아니다, 사법이다, 무당이다, 이렇게 흉볼 것도 없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면 높이 보이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를 흉보지 말고 '저런 거는 이렇게 해야 할 텐데….' 마음속으로, 겉으로 입 밖에 내어 구업을 짓지 말고 항상 이익하게 마음을 내주는 데 목적이 있다는 얘깁니다.

어린애들을 기를 때에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면 그 자녀들이 잘못한 거를 드러내겠습니까? 도둑질을 했다 하더라도 어머니는 숨길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내 자식을 사랑하듯이 숨기면서 거죽으로는 말없이 안으로 굴리면서 이익하게 마음을 내 주는 그것이 바로 무주상 보시이며 부처님의 뜻이며 바로 보살의 행이라고 봅니다. 하나서부터 열까지 우리가 남을 해하게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아마도 억겁을 걸쳐 가면서 요만한 거 하나라도 내가 한 것만치 내게 돌아올 것입니다.

세상에 만약에 조그마한 소나무가 없다면 중치 소나무가 없고 중치 소나무가 없다면 큰 소나무가 없고, 또 삐뚤어진 게 없다면 바로 선 게 없을 겁니다. 조화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진리라고 이름을 지었고 산천초목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자연의 조화가 이렇게 보기 좋다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삐뚤어진 사람, 똑바로 곧게 올라간 사람, 옆으로 굴려진 사람, 땅끝에 붙어서 자라지도 못하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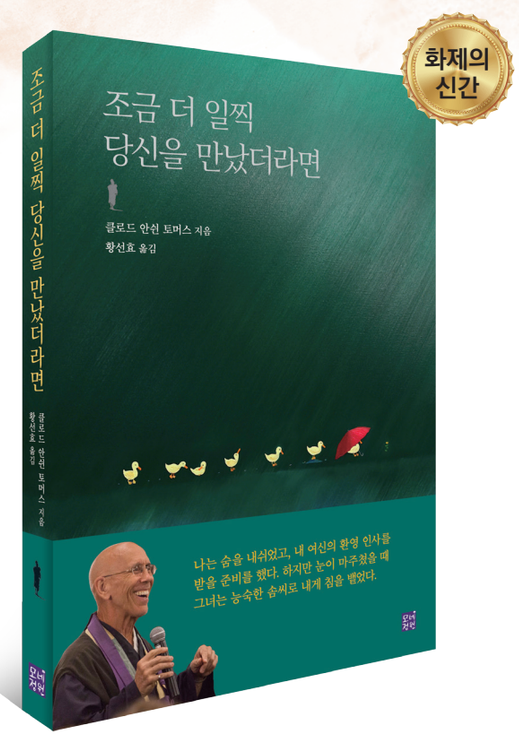
사람의 모습은 그렇지 않지만 마음이 그러해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그런 행을 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중하지 몸이 중한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비롯되어서 모든 것을, 몸은 행하게 되고 앉게 되고 서게 되고 말하게 되니깐요. 우린 부처를 이룬다기 이전에, 깨치기 이전에 이 도리를 알아야 깨쳐도 '아하, 다 이렇게 하나하나 나투어 가면서 놓아 가고 돌아가는 이 텅텅 빈 그릇을, 괜히 여기다가 내 마음으로 담아 놓고 무겁게 애를 썼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서야 들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공부를 하게 되면 '아, 그 모습도 없는 것이구나. 내 마음에서 스스로 모습이 천차만별로 화하는 거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되겠죠. 그때는 바로 '자기가 마음 쓰기에 달려 있고 참나의 생명수의 맛을 보게 하는 나의 스승이 바로 내 마음에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게 내가, 조그만 거라도 진실하게 체험하면서 내가 한번 굴려보고 지켜보고, 지켜보고 또 굴리고 하다 보면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해 보십시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5년 1월 20일 정기법회 법문 중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